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시카고 연준 총재 “2% 물가 목표, 고통 없이 이룰 수 없어”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S&P, “AI 사용 역량이 은행간 신용 수준에 영향”
- WSJ: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등 채권 시장 지형이 바뀌었다
- Bloomberg: 미·이란 외교 기대감에 유가 하락… 증시·채권 동반 강세

[오일]
- WSJ: 유가, 지난 6월 이후 최장기 연속 하락세
- WSJ:: 유조선 부족, 기름값 고공행진 부추긴다

[미중 관계]
- Bloomberg: 미 USTR “미·중 무역 휴전 연장 논의”

[인공 지능]
- TechCrunch: AI 업계, 정말 속도 둔화 준비됐나
- CNBC: 미 재무장관 "AI 기업에 면책 특권 안 준다"

[주택]
- TheEconomist: 금리 또 치솟는데… 이번엔 주택 시장 타격 입나
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’s Goolsbee Says Road to 2% Inflation May Not Be Painless
시카고 연준 총재 “2% 물가 목표, 고통 없이 이룰 수 없어”

- 시카고 연은 총재 Austan Goolsbee 는 지속되는 공급망과 원자재 차질을 좌시할 수 없으며, 경제적 고통을 있더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.
- 그는 런던 행사에서 "공급 쇼크의 빈도와 파급력이 커지고 길어졌다 "인플레를 일으키는 원유 등 공급 쇼크가 일상화되면 이를 용인하고 넘어가는 기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"고 지적했다.
- 그는 "스태그플레이션성 충격이 오면 연준은 고용과 물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지에 직면한다"며 "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는 것만이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유일한 길"이라고 강조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AI Use Will Soon Influence Banks’ Credit Ratings, S&P Says
S&P, “AI 사용 역량이 은행의 신용 수준에 영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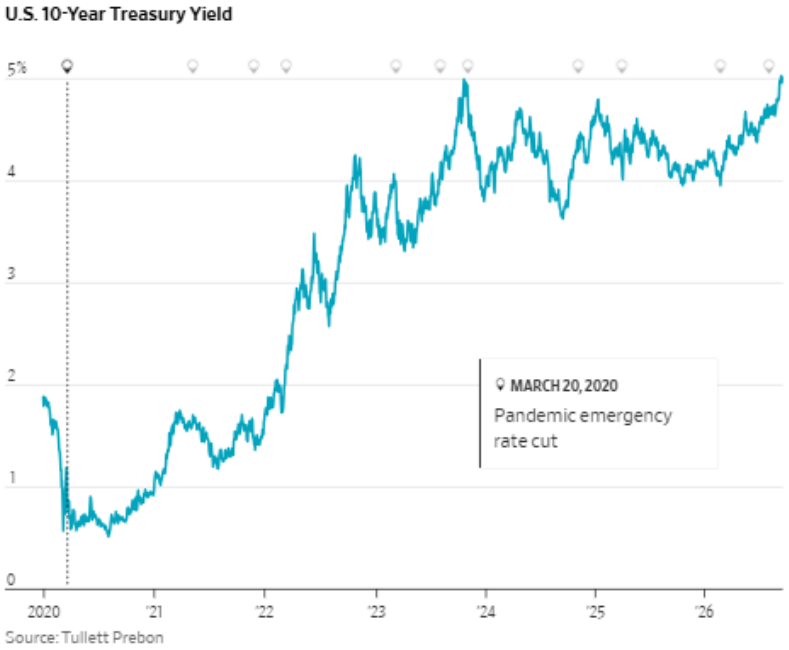
- S&P Global Ratings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년 내 은행들의 AI 활용 역량이 신용 수준 평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S&P는 AI 전략의 숙련도와 지배구조(governance) 틀의 견고함에 따라 은행 간에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.
- 이어 "도입 속도, 지배구조의 성숙도, 운영 준비 태세의 차이로 인해 AI가 향후 수년간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가 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기사

WSJ: See the 10-Year Treasury Yield’s Wild Ride on the Road to 5%
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등 채권 시장 지형이 바뀌었다

- 팬데믹과 전쟁, 재정 적자가 지난 10년간 채권 시장의 지형을 바꿔 놓았다.
- 지난 수년간 연이은 악재에 시달려 온 채권 시장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결국 19년 만의 최고치인 5%를 돌파했다.

- 먼저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 터지면서 물자 공급이 차단됐고, 이는 인플레를 부추겼다.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재정 적자는 시장에 국채 물량을 쏟아붓는 한편 소비 지출을 자극했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"공급 차질과 재정 적자가 끌어올린 수요가 채권 시장에 연타석 충격을 가한 셈"이라며 "어느 한쪽만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상황"이라고 진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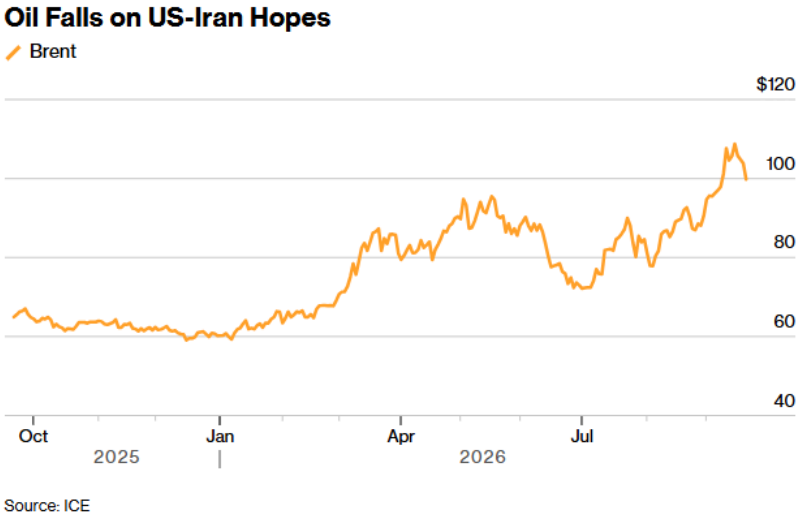


기사

Bloomberg: Stocks Rise in Upbeat Start to Week as Oil Drops
미·이란 외교 기대감에 유가 하락… 증시·채권 동반 강세

-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해결 기대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상승세로 월요일 거래를 시작했다.
- 반도체주의 상승세까지 더해지며 S&P 500 지수는 이달의 낙폭을 모두 메웠다. 오늘 월요일 1% 가까이 상승중이며 나스닥은 1.5% 상승중이다.

- 브렌트유 선물은 4일 연속 떨어지며 6월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나타냈고,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5% 아래로 내려왔다. 비트코인은 8만 5,000달러 선을 돌파했다.



기사

[오일]

WSJ: Oil Heads for Longest Stretch of Daily Declines Since June
유가, 지난 6월 이후 최장기 연속 하락세

-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4거래일 연속 떨어지며 약 3개월 만에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.
- 오늘 목요일 오전에 브렌트유는 3% 넘게 하락해 배럴당 100.5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. 지난주 월요일 기록한 109.80달러 대비 낙폭이 크지만, 이달 전체로는 여전히 약 11% 오른 상태다. 4일 연속 하락은 6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.
- 미국과 이란 간 경고성 발언에도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. 시장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주목하는 분위기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인터뷰에서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.

기사

WSJ: A Shortage of Oil Tankers Is Threatening to Keep Gas Prices High
유조선 부족, 기름값 고공행진 부추긴다

- 사우디우회 파이프라인의 드론 공격 피해로 원유 수송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쏠리면서 유조선 부족 난이 커지고 있다.
-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대형 유조선 하루 선박 이용료는 역대 최고치인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.
- 사우디 아람코는 선박 간 환적까지 동원해 수송에 나섰지만, 이로 인해 유조선이 고립되면서 선박 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모양새다.
- 선박 간 환적(Ship-to-Ship Transfer)'은 육지 항구나 정유 시설에 배를 대지 않고, 바다 위에 두 배를 바짝 붙여놓고 한 유조선에서 다른 유조선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작업이다.

기사

[미중 관계]

Bloomberg: Greer Says US, China to Continue Talks on Trade Truce Extension
미 USTR “미·중 무역 휴전 연장 논의”

- 미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는 미·중 무역 휴전 연장 조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논의중이라고 밝혔다.
- 오는 11월 10일 기존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,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~6개월 단위의 단기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.
- USTR 대표는 당장 연장 합의에 도달하진 않겠지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협상을 이어갈 것"이라며 "현시점에서 양국이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각"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TechCrunch: Is the AI industry really ready to slow down?
AI 업계, 정말 속도 둔화 준비됐나

- 앤트로픽 최고경영자(CEO) Dario Amodei 가 AI 개발 속도를 조율하자고 제안했지만,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.
- 업계 리더들이 Amodei의 안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.
- 정부도 AI를 규제할 생각이 별로 없는 데다, 소비자가 맘에 안 든다고 다른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힘든 구조라 AI 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.

기사

CNBC: Trump admin won’t give AI leaders a ‘liability shield,’ Bessent tells CNBC
미 재무장관 "AI 기업에 면책 특권 안 준다"

-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(AI) 개발사들에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.
- 연방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"AI 개발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"고 단언했다.
- AI 규제 반대 기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"책임 주체는 AI가 아닌 인간"이라고 선을 그었다.

기사

[주택]

Economist: House prices survived the last interest-rate rise. Will they this time?

금리 또 치솟는데… 이번엔 주택 시장 타격 입나

- 지난 금리 인상기를 견뎌낸 전 세계 주택 시장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%를 돌파하자 다시 휘청이고 있다. 과거 시장을 받쳐주던 버팀목들이 모두 사라진 탓이다.
-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고정 기간을 줄이면서 금리 상승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.
- 그리고 팬데믹 지원금으로 쌓였던 방대한 현금 저축도 소진되어 고금리를 견딜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.
- 여기에 주택 신축이 늘고 매물이 쌓이면서 시장 주도권마저 매수자에게 넘어갔다. 고금리 장기화로 글로벌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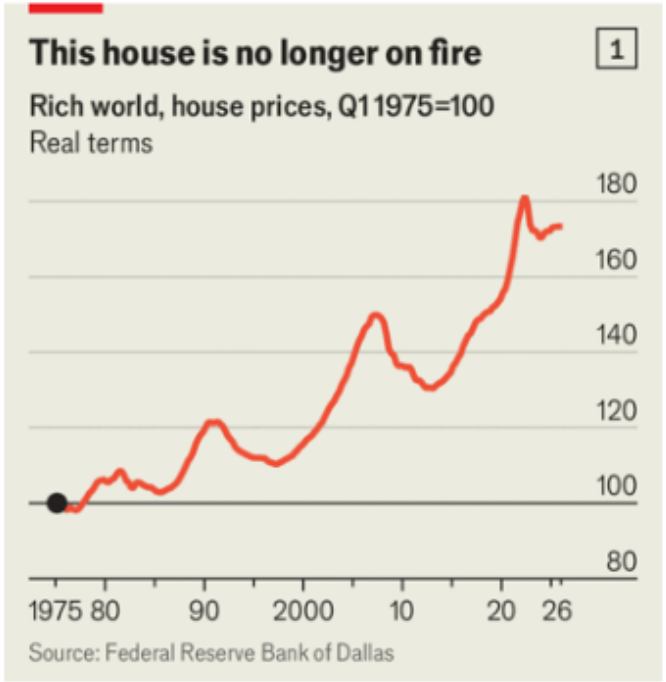


CHART: THE ECONOMIST

[글로벌 해운 브리핑]

호르무즈 해협

-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이번 주 들어 유조선 피격과 기뢰 사고가 잇따르며 한층 격화되었다.
-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페르시아만에 원유가 유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
- 한편 호르무즈를 통과해 걸프 내 터미널에서 적재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현물 운임은 9월 11일 하루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.
- 외교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미국에 7개 협상 조건을 전달하며 대화 채널을 가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.
- 호르무즈 해협 글로벌 통과 선박 수는 22척에서 37척으로 68.2% 증가했으나 이는 기준일(9월 13일) 이전 데이터로 이번 주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.

홍해/바브엘만데브

-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세도 이번 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.
-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9월 11일까지 페림 섬을 장악했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912.10	+231.4	+0.45%
US 500	7,733.60	+83.5	+1.09%
Dow Jones	51,884.48	+201.84	+0.39%
S&P 500	7,729.93	+79.81	+1.04%
Nasdaq	26,954.04	+431.50	+1.63%
S&P 500 VIX	14.78	-0.03	-0.20%
Dollar Index	100.11	+0.180	+0.18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4/32	5.297	-0.028
10-Year Note	4.625	2/32	4.967	-0.030
7-Year Note	4.5	2/32	4.895	-0.027
5-Year Note	4.375	23/32	4.829	-0.032
3-Year Note	4.375	1/32	4.811	-0.023
2-Year Note	4.125	0/32	4.746	-0.006
1-Year Bill	0	0/32	4.405	0.000
6-Month Bill	0	0/32	4.279	0.010
3-Month Bill	0	0/32	4.084	0.004
1-Month Bill	0	0/32	3.890	0.011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75.00	1,577.06	873.07	205.45	1.1483	100.38
-13.00 (0.94%)	-16.57 (1.04%)	-11.26 (1.27%)	-1.85 (0.89%)	+0.0009 (0.08%)	+0.16 (0.16%)
9. 22. 00:33 ● 실시간	9. 22. 00:33 ● 실시간	9. 22. 00:33 ● 실시간	9. 22. 00:33 ● 실시간	9. 18.	9. 21. 11:26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75.20
1,375.2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